

virtual CONVERSATIONS <" "> CULTURES ,, PRESENTERS ,,

Computer-Mediated Art Instruction at the College-level: How We Accept the Conditions of Cultural Identity

Tai Ho Kim
Seoul Women's University

김태진
(서울여자대학교)

The course of video classes that I taught in 2005 was based on an effort to find what kind of cultural background we have in Korea. At the beginning of the spring class, students in the class were encouraged to have a certain critical amount of Korean cultural identity. Now I find it was not an appropriate method to lead students to find naturalness in their works. As a result of pushing them into feeling it was mandatory to have something Korean in their works, they were trying to shoot a series of Korean traditional objects and places that were stereotypes too banal to use in a new way. Therefore, I admit that I had put some obstacles that prevented keeping their points of view as natural as possible from the beginning of the first semester. One thing that can be taken productive from the mistake is that the students and I came to recognize why traditional icons have to remain traditional and not produce any kind of new point of view.

That was the key point where the students and I had been relieved from the idea of having a cultural identity. Students seemed to approach the way they live and trivial

2005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수업들은 우리가 어떠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봄 학기 첫 수업에서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비평적 관점을 형성할 것을 주문받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토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던 듯 하다. 한국적인 것에 관한 일종의 관점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요구의 결과로 학생들은 너무도 진부한 전형이 되어 버려서, 더 이상의 새로운 조망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련의 한국 고유의 물건이나 장소를 캠퍼스에 담으려 노력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관점을 최대한 열려있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명제에 반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을 학기 초부터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실수로부터 필자와 학생들 모두 공통적으로 어찌하여 전통적인 도상들은 전형적인 상태로 남아 더 이상 새로운 관점을 낳지 못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생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은

virtual CONVERSATIONS <" "> CULTURES ,, PRESENTERS ,,

things that can usually be found from the daily routine. Other than that case, some students tended to stick to their inner world. *Cell Phone* (by Jung-sang Lee) is an example that shows how the aspects of habit and obsession are mixed in the daily routine. A girl who shows up in the video seems to be playing with the cell phone, and at the same time it looks like she is waiting for a call from someone all the time in a sequence that presents the bedroom without lighting. The light from the cell phone in the dark bedroom appears to make her more concentrated on the phone, and she even looks as if she is treating the cell phone as a living thing.

A documentary video, *Where Are We Headed To?* (by Hyun-sook Kim) shows how she approached cultural issues in Korea by focusing on how people find the way of loving traditional culture in their daily lives. The *Gook-ak* (Korean classical music) teacher from the alternative school tries to find a way to apply the merited factors of *Gook-ak* to the class through a non-classical but experimental way. And the other person who is focused on the other part of the video works for a bank, and he is a collector of antiques as well. On his way to his workplace from home, he does not bother to walk more than necessary because he chooses the way through In-sa dong. In-sa dong is one of the places where you can find more

로부터 다소간 자유로워 질 수 있었다. 학생들은 그들이 사는 방식과 그들의 일상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시도 외에도,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내면세계에 천착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셀 폰(Cell Phone)’(이정상 제작)은 일상의 모습 안에 어떻게 습관과 집착이 혼합된 양상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비디오 화면 속의 여자는 불 꺼진 어두운 침실 안을 보여주는 장면 내내 휴대전화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걸려올 전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두운 침실 안에서 유일하게 발하는 휴대전화 액정화면 속의 빛은 더욱 더 그녀로 하여금 전화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심지어는 그녀가 휴대전화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다루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까지 한다.

다큐멘터리 비디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김현숙 제작)는 어떻게 사람들이 일상을 통해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방법을 발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녀가 우리의 문화적 쟁점들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안 학교의 국악 교사는 국악의 장점을 전통적 방법을 통해서가 아닌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수업에 적용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작품의 후반부에서 조망되는 또 한명의 주인공은 은행원인 동시에 골동품 수집가이기도 하다. 그는 직장에 출근하는 길에, 굳이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겪지 않아도 뒀에 불구하고 인사동 길을 통해서 도보로 출근

virtual CONVERSATIONS <" "> CULTURES ,, PRESENTERS ,,

antique shops than other areas in Seoul, and he seems to be really happy at the moment of walking on the street.

Another documentary video produced by her presents an old inn and an old woman who owns and manages it. The progress of how the video has been made is composed of four parts: finding the place, interviewing a person who is directly related to the place, documenting it on a video, and editing it trying not to intrude the context from the fact. This is quite the same with the typical process of making a documentary film, but the aesthetic aspects that stem from the video are not based on any manipulation but on a poetic prose that the old woman made while she was being interviewed. Her statements are not making a complete consequential structure, which is more or less correlated randomly. They create a unique and autonomous flow of consciousness. This project was completed under a couple of suggestions from the class of fall semester.

The first request from the class was that you have to research a site and bar any kind of site-specific point of view from it. And the next request was that you should try to intervene and influence on the context that was born from the site. Five students (Ji-eun Jung, Seo-yeon Hong, Su-jin Bae, Young-hee Choi, Yeon-hee Lee) in the class worked together for three projects each time. One of the three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인사동은 주지하듯이 골동품 상점이 많이 모인 곳이다. 그가 인사동 길을 걷는 순간에 얼마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를 화면을 통해 조금은 엿볼 수 있다.

그녀가 제작한 또 한 편의 다큐멘터리 비디오는 오래 된 여관과 그 곳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한 노파를 보여준다. 이 비디오가 제작되는 과정을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장소를 발견하고, 그 장소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며, 그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발견한 사실의 맥락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그것을 편집하는 것이다. 이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 작업에서 발생하는 미학적 측면은 기록화면의 조작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파가 인터뷰 중에 내뱉은 산문시와도 같은 말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녀의 진술은 완전한 논리적 진술의 구조를 보여주지 않고, 다소간 무작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들은 독특하고 자율적인 의식의 흐름을 창출해 낸다. 이 프로젝트는 가을 학기의 수업에서 제안된 한두 가지의 조건 하에서 완성되었다.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된 첫 번째 요구는 먼저 하나의 장소를 선택하여 장소성의 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장소가 발생시키는 맥락에 침투하여 영향을 끼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다섯 명의 학생(정지은, 홍서연, 배수진, 최영희, 이연희)들은 세 가지의

virtual CONVERSATIONS <" "> CULTURES ,, PRESENTERS ,,

projects was about *Chung-gae-cheon*, which is a stream running across the north area of Seoul. This stream had been covered by concrete pavement for more than 30 years, which had been creating a lot of serious problems for the ecosystem and made the water polluted.

Moreover, there are a number of historical heritages buried under the pavement. Gwang-gyo, as a representative example among them, is an extravagant stone bridge that was built hundreds years ago in the age of the Chosun dynasty. Therefore, if any mayor would ever try to uncover the stream and rebuild the area around it, he/she possibly could encounter a huge debate from diverse people with diverse points of view about how to make it. Anyhow, this rebuilding project has been completed even though it had faced a lot of resistance when it was in progres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result still remaining on condition of how the project was finished.

For instance, the connection between the stream and the natural headspring was not rebuilt completely. That means the water flowing in the stream is actually tap water that the city government pays KWRC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budget for. They made three events when the area was extremely crowded with people who are all indulging in the triumphant moment of watching newly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의 하나를 예로 들자면 서울 강북 지역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에 관한 프로젝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천은 콘크리트 포장되어 30년이 넘도록 복개된 상태로 있었고, 이는 자연 생태계와 수질에 대하여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복개된 포장도로 아래로 흐르는 청계천에는 많은 역사적 유물들이 묻혀 있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예로, 수 백 년 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석조교각, 광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 서울 시장으로서, 이 하천을 복원하고 주변을 정비할 시도를 하게 된다면 수많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논쟁 한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복원 계획은 착수한 이래 공사 도중에 직면한 수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완료되었다. 그러나 그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에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수원의 관계가 복원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는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는 곧 하천을 흐르는 물이 자연수가 아닌 수도물이고,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예산을 지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 탄생된 청계천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들뜬 기분에 고취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학생들은 세 가지의 이벤트를 그 곳에서 벌였다. 그 이벤트들은 복원공사 기간동안 생겨난 몇 가지 실수를 상징적으로 보완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이벤트를 바라보

virtual CONVERSATIONS <" "> CULTURES ,, PRESENTERS ,,

born Chung-gae-chun. The events are relevant to the efforts for making up the faults that had been made during the rebuilding project. They urge the viewer into having a critical viewpoint about alternating the artificial condition with more natural results.

Other interesting projects that are included on the list of works for screening are not introduced in this writing, and I would like to put off the chance to introduce them until the screening on February 2006. The class of fall semester was about trying to find real factors from the experiences on the real environment. The next key point about keeping the video real is in shooting and editing. If you could ever find what is real from the experiences in the site, you might be able to figure out what you have to do or not during working on shooting and editing. These whole attempts based on real sites had been suggested to approach a significant value in the cultural background experiences in the site, you might be able to figure out what you have to do or not during working on shooting and editing. These whole attempts based on real sites had been suggested to approach a significant value in the cultural background

는 이로 하여금 인공적으로 복원된 청계천의 상태를 대체할 자연적인 결과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상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그 밖의 흥미로운 작업들은 본 글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으며 2006년 2월의 상영이 이루어 질 때까지 선보일 기회를 미루어야 할 듯 하다. 지난 가을 학기의 수업은 실제 환경에 처하여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어떻게 실재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물인 비디오가 보다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한 다음의 단계는 촬영과 편집의 문제이다. 만약 한 장소에서 실재라고 할 무엇인가를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촬영하여 기록하고 편집하는 동안에도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모든 실재하는 장소들과 관련된 시도들은 우리가 처한 문화적 배경 안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가치들에 접근할 수 있을지를 제안하기 위한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을 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 모든 실재하는 장소들과 관련된 시도들은 우리가 처한 문화적 배경 안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가치들에 접근할 수 있을지를 제안하기 위한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